**여명학교 11월 기도제목** **2015.11.26. 목요일**

**<대한민국과 통일>**

**1,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오늘(10월26일) 오전 10시 30분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다. 8.25남북합의 후속프로그램으로 열리는 남북당국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이 있도록**

**2 <북한 핵무기 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남북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중단 상태처럼 보인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창의적인 노력과 발전이 있도록**

**3, 김영삼 전대통령 서거로 여야가 함께 추모하고 있다. 여야가 건설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여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4, 대한민국 경제는 동력을 상실해 가고, 회복되는 일본과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 견제하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점점 정체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국가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일어나도록**

**<북한과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 나선특구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상당한 우대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외국과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민간 경제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 극심한 경제 위기로 인해 북한이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핵무기 실험과 관련된 행동이 잠잠한 상태이다. 장마당을 통한 실질적인 시장 경제가 가능한 상태이고, 적극적인 북중관계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모양새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인민의 인권과 자유가 개선되고 삶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3, 북한인구는 남한의 1/2이고, 1인당 GDP는 남한의 3%이하이다. 동독이 서독인구의 1/4이었고, 1인당 GDP는 3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 상태에서 남북 통일로 인한 남한의 재정부담은 충격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북한의 상황들이 회복되어 가도록**

**4, 남북간 70년 분단 상태에서 생긴 이질화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이들이 잘 배우고, 행복하게 정착하고, 북한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학생들>**

**1, 지난 토요일 여명의 날을 마치고 학생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열정적으로 학업에 충실하도록, 대학진학을 확정한 고3학생들이 나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2, 35명의 고3학생들 중에 아직 대학 확정이 안 된 학생들의 대학 진로가 잘 확정되도록, 특별히 연세대학교 2차 발표(12/9)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은혜가 있도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적절한 직장을 잘 찾도록.**

**3, 2학기부터 비보호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글 교육 특별반에서, 한국어 교육 노하우를 축적하고, 학생들의 한글실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재미있게 공부하며 만족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4, 여명학교 졸업생 중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77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직장 생활 중인 57명의 학생들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중인 학생들과 연락 두절된 학생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동문회가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잘 모이고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1, 11월21일(토) 여명의 날 행사를 잘 마치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여명학교와 후원자들이 통일준비학교의 비전을 함께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함께 노력하고 함께 준비해 나아가도록**

**2, 통일인재를 양성하고, 통일한국의 북한학교 교육의 모델이 되며,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통해 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통일준비학교의 비전을 잘 감당하도록, 학교 건립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잘 성사되고, 적절한 위치에 최선의 학교를 건립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3, 여명학교의 5가지 중점 교육 -주도성교육, 독서교육, 인성교육, 봉사교육, 건강교육-이 잘 정착되어 학생들의 미래 인생에 큰 유익을 제공하도록**

**4,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한 학기의 마무리를 잘 감당하고, 내년 새 학년도를 위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5, 특별히 김신동, 강수산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금주 토요일 결혼하시는 김지영 선생님의 신혼 가정을 축복하시기를**